

전국 신규확진 7630명 역대 두번째

코로나 오미크론 여파로 증가세 위증증 환자·사망자수는 감소세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기준 최대인 70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30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73만390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622명 늘면서 이틀째 7000명대를 이어갔다. 일반적으로 휴일에는 주말 검사 수 감소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요일에 관

계없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온 이후 두 번째로 많다. 최다 기록은 지난달 15일 7848명이다.

또 토요일(발표일 기준 일요일)과 일요일(발표일 기준 월요일)을 통틀어 주말에 발생한 확진자 수로는 역대 최다 규모이기도 하다. 1주 전인 지난 16일 4190명보다는 3440명 많고, 2주 전인 9일 3371명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확진자수 증가에도 위증증 환자와 사망자수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위증증 환자는 431명으로 전날(433명)보다 2명 줄면서 나흘 연속 400명대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19.9%(2208개 중 439개 사용)로, 직전일(20.4%)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사망자는 11명 늘어 누적 6540명이 됐다. 사망자가 1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69일 만이다. 최근 0.9%대였던 누적 치명률도 0.89%로 낮아졌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경기 2667명, 서울 1634명, 인천 589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4890명(66.6%)이 쏟아졌으며,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도 나흘째 2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기본접종을 마친 비율)은 이날 0시 기준 85.4%(누적 4380만 1851명)다.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49.2%(누적 2523만2천604명)가 마쳤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전남 선별진료소 자가키트 도입

유증상자, 음성일때 귀가 양성일때 무료 PCR 검사 오미크론 우세종 지역, 26일부터 새 검사방식 도입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우세종이 된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 방식이 도입된다.

다음은 21일 정부가 설명한 오미크론 우세 지역에서의 검사·진료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오미크론 우세 지역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 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곳에서는 보건소에서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분류된 역학 연관자,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의사소견서 보유자, 신속항원검사서 양성인 확진자, 60대 이상 등 네 가지 고위험군 분류에 해당할 경우에만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오미크론 우세 지역에서의 고위험군·유증상자·무증상자 검사 절차와 비용은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지역의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에 가면 먼저 일반용(비강검체 채취) 신속항원검사키트로 무료 자가 검사를 한다. 음성이 나오면 귀가고 양성인 나오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유증상자는 집 근처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원·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의사를 만나 진찰·상담을 받고 전문가용(비인두도말검체 채취) 신속항원키트로 검사를 받는다. 이때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의사 진찰·상담료는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무증상자이지만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도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유

증상자와 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총 43곳이 지정됐다.

-유증상자를 PCR 우선검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유증상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주관적 판단이다. PCR 검사 역량은 하루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검사 수요는 85만건을 넘어설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유증상자 중에서도 의사소견서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PCR 검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무증상 동료 직원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서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역학적 관련자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후 "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대상이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기존처럼 다수에 대한 투망식 선제검사가 광범위한 역학조사는 어렵다. 따라서 보건소가 PCR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만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접촉자라는 이유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며, 증상이 나타났거나 증상이 없어도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라면 선별진료소나 호흡기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검사 대기 줄이 전보다 길어지지 않을까. ▲선별검사소 대기 줄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진료소에 가면 자가검사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자가 검사 후 4분 안팎이 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여순사건위원회 출범...74년 만에 진상규명 착수

희생자·유족 심사 등 심의·의결 실무위, 1년간 피해신고 접수

정부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께 출범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 화합의 길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에 제정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이규중·서장수 유족대표가 21일 서울 여순사건위원회 사무실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헌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6명의 정부위원과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촉된 총 9명의 제1기 민간위원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유족대표, 법조계, 학계, 지역·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6명의 정부위원과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촉된 총 9명의 제1기 민간위원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유족대표, 법조계, 학계, 지역·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일상회복지원금 첫 1주일 만에 100만 명에게 지급

광주시는 "온·오프라인 지급 신청을 시작한 지 첫 1주일 만에 광주 시민 100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지급 대상자(146만 8493명)의 69.8%에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17일부터 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

72.3%, 행정복지센터 선불형 상생 카드 지급 19.5%,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지급 8.2% 등이다. 별도 구비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을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상회복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대형 가전 판매점,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화정아이파크 붕괴 중수본 운영

▶1면에서 계속

국토부가 운영 중인 건설사고대응본부는 중수본에 편제돼 건축물·구조물 안전 점검, 현장 수습 등에 대한 검토를 주관한다. 행안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실종자 가족과 인근 건물 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 구호 활동 등 피해 지원을 총괄한다.

중수본은 24일 오후 3시 사고 현장에서 첫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색·구조 활동, 타워크

레인 제거, 붕괴건물 안정화, 실종자 가족 지원 등 상황을 보고받고 수색·구조 계획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지역사회는 정부 주도의 중수본 설치를 요청해 왔으며, 해외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급 물살을 뚫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지자체와 업체의 노력과 힘입으로는 실종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지원 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사고 수습 과정 전반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희생자 가운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간호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가족 등의 아픔을 위로하고,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위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중개환영. 010-8902-7900

제일오피스텔 급매
수기동, 20층 중 8층, 33평, 코너 시세 1억-급매 8천만원, 1/31까지
소유자 직매.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대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톤층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주택 부지와 사채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너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 구내포장 배수소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층)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사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달달생
전원주택지 가능·귀촌·휴양지 적함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명주 010-3454-2389

광주하이테크센터 식당 임대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광주하이테크센터 식당 임대 운영사업자 선정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광주하이테크센터 B111호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시설현황

| 구분 | 내 용 |
|------|--|
| 운영대상 |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광주하이테크센터) 식당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광주하이테크센터 B111호 |
| 규모 | - 연 면적 : 18,533.47㎡(총수 : 지하1층, 지상8층) - 식당면적 : 583.35㎡(전용면적) |
| 식수인원 | 중식기준 약 200~250명 (건물 상주인원 42개사 약 300~350명) |
| 급 식 | 중식(1식 4찬이상), 조식 및 식사는 별도협의 |
| 매식단가 | 5,000원(부가세 포함) *별도협의 가능 |

• 임대료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매년 인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70,834,000원, 월임대료 2,125,000원(부가세 별도)
* 코로나19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월임대료 30% 감면 실시(~'22.6)
** 일반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은 별도 부담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식품위생법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식품접객업(위탁급식) [업종코드: 1450]으로 허가를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식수 인원 150인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안서 제출
• 제출마감 : 2022. 2. 4(금), 16:00 까지

• 제출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제출(우편제출 불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5층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 제안서 평가 : 2022. 2. 9 (수) 장소 : 우리공단 5층 회의실
*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미리 통보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현금(납부계좌 : 기업은행 078-129323-01-010, 예금주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은 취소되며, 납입된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한다.

6. 낙찰자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 후 계약체결
• 가격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 진행 (단, 평가위원 심사평가표의 운영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업체에 한함)
• 제안서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업체의 제안서 발표 내용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점수 산출
•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항목 중 메뉴관리, 운영계획, 경영상태, 기타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7. 문의사항 :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070-8895-7932)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 (www.kicox.or.kr)에서 확인가능

2022년 1월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